일반논문 NGO연구 제15권 제1호(2020): 97~144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논쟁적 접근

서준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정책의 핵심과제이고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은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집적된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형태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아울려는 세대 간 포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인 과잉생산과 소비에 기반을 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함으로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사회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방식인 공유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소유에 중점을 둔 자본주의적 경제방식과 달리, 협력적 또는 공동의 소비를 중심으로 공유에 기반을 둔 접근이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이 초래한 빈곤, 실업,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 함께 과잉생산과 소비에 따른 환경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형 지속가능한 발전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효과와 달리, 공유경제의 정체성과 실질적 효과나 영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 등 여러 영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기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강화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경제는 잠재적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논쟁,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유경제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제어 |

공유경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urban sustainable development)은 유엔의 세계 환경 및 개발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보고서(일명 브룬틀랜드 보고서: Brundtland Report, 1987) 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언급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적 정의를 도시에 접목시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 등 도시 전반을 아울려는 통합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념적 그리고 이론적 의미와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적용은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기존의 도시는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에 중점을 둔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으로 인해 합리적인 생산에 따른 적절한 소비보다 과잉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과 발전을 추진함으로서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성 또한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합리적 생산 및 소비의 필요성이 부각됨과 함께 개인소유의 유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방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도모하는 공유경제(sharing or shared economy)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중된 도시를 중심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물품이나 유무형적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필요한 만큼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제품 또는 자원을 다수가 함께 나누면서 사용하는 협력적 또는 공동의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하는 경제방식이다. 공유경제는 무엇보다도 20세기 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한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즉 실업,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과잉개발과 생산에 따른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1세기형 지속가능한 경제방식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체제의 소유권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와 접근(access)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다. 즉,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을 활용한 사회연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를 통한 개인 간 신뢰의 형성으로 공유 활동을 증대시키는 한편, 각각의 개인이 소유한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협력소비를 장려함으로서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는 단순히 물리적 제품에 한정된 공동의 사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일자리, 공간, 재능과 능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적된 도시에 여러 형태의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도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인 과잉생산과 소비를 통한 성장과 발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방향을 추구함에 있어 공유경제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의 정체성과 실질적 영향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실체에 대한 논쟁에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에 따른 여러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neo-liberalistic economic structure)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공유경제의 근간은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1]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에

1)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망(networks)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기업과 소비자의 연결과 함께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담당하는 플랫폼 기업(platform companies)이 주도하는 경제체계로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라고도 한다.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며, 플랫폼을 운영 및 관리하는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에 의해 공유경제의 생산과 소비가 좌우됨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 capitalism)로 경제규모의 확장과 성장만을 도모하는 의도된 경제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에 대한 핵심적 논쟁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공유경제의 잠재적 효과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공유경제가 여러 형태의 부정적인 효과, 즉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유시장의 독점성, 수익배분의 불합리성, 고용의 불안정성, 정부개입과 규제의 한계성 그리고 공유거래의 신뢰성 부재와 함께 환경적 측면에서도 과잉소비에 따른 비환경성 등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논쟁, 특히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유경제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연구의 경우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활용방안 등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에 따라 본 연구는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공유경제의 긍정적 그리고 비판적 접근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함께 공유경제와의 관계를 탐색한 후, 본 연구의 핵심인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논쟁, 즉 공유경제가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미칠 잠재적인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II.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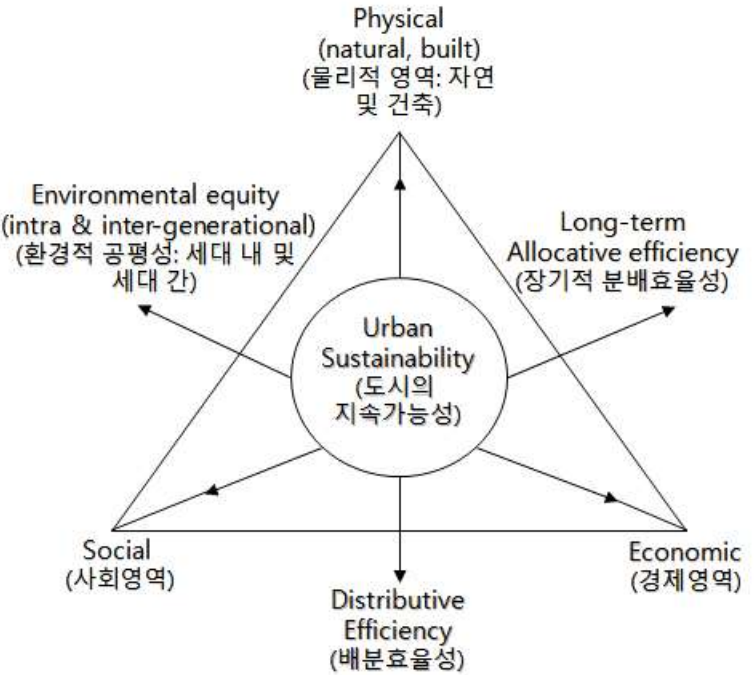
1.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적 정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의 모든 영역, 즉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모두 아울려는 통합적 접근으로 도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도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엔 산하 세계 환경 및 개발위원회(WCED, 1987)의 보고서(일명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에 처음 언급된 후 발전 정책의 방향에 대한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인간 삶의 세부적인 영역에서부터 다양한 변화와 함께 물리적 개발에 있어 환경을 우선하는 보호적 또는 규제적 의미를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주변적 의미에 한정됐던 환경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경제 및 사회적 영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접근뿐만 아니라 세대 내(intra-generational) 그리고 세대 간(inter-generational)을 아울려는 공정한 개발이라는 규범적이고 윤리적 측면까지도 전제하고 있다(Agyerman and Evans, 2003). 유엔환경프로그램 연차보고서(UNEP, 2010)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함께 저탄소(low carbon), 자원효율성(resource efficiency), 사회적 포괄성(social inclusion) 등을 포함한 인간의 복리(well-being)와 사회적 공평성(social equity)은 물론이고, 환경적 위험요소나 생태학적 결핍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하고 있다. 특히, 도시는 다양한 이해관련자의 능동적인 협동과 함께 전문지식을 가진 주체들 간 협력적 결합을 장려하는 환경을 갖춘 공간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Agyerman and Evans, 2003; Bulkeley, 2006).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정주와 사회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성장지향적인 접근(growth-oriented approaches)으로 초래된 각종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 측면 등 여러 영역이 상호공존하고 작동하는 다양성(diversity)을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폭넓은 정치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정책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로 받아드려지고 있다(Goodland, 1995).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영역별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영역은 서로 간 상호보완적 결합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도시보고서(EGUE, 1996)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실질고용과 잠재적 고용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평생 및 정기적 교육훈련과 함께 잠재적인 사회적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회적 체계 등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가 직면한 주요한 도전은 도시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영역 간 통합을 중심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정책방향은 도시 내 환경적 측면인 자연 및 인위적 부분을 포함한 물리적 영역을 경제 및 사회영역과 연결시킨 통합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현 세대 내 뿐만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환경적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배분적 그리고 장기적인 분배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Finco and Nijkamp, 2001; 〈그림 1〉 참조).

〈그림 1〉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원칙과 접근방향



출처: Finco and Nijkamp, 2001

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핵심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활조건과 관련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영역과도 결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Colantonio, 2010; Landorf, 2011).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은 과도하리만큼 다양하고 서로 간 이질적이며, 접근방법 또한 다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Landorf, 2011).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도시 내 구성원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에 있어 자원의 활용을 최소화시켜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개발에 따

른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세대 간 공평성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상충적 특성을 가진 전략과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념적 정의의 모호성이나 전략 및 목표 간 상충적 특성 등 여러 한계를 갖고 있지만,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기존의 대량생산과 소비에 중점을 둔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으로 인한 폐해가 도시에 집중됨으로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빈부격차와 경제상황의 불안정성 등과 같은 문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방식인 과잉생산과 소비에 따른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불안정성과 상반된 공동의 그리고 협력적 소비에 중점을 둔 새로운 경제방식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의 의미와 효과

1) 공유경제의 개념적 정의 및 실행과제

현재, 경제용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는 공유경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는 별개로 공유경제의 개념적 정의는 불분명하다. 특히, 공유경제의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함에 있어 한계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용어들로(예를 들면 임시직 경제(gig economy),[2] 소비자직거래경제(DIY economy),[3] 협력적 경제 또는 소비

2) 임시직 경제(gig economy)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임시직으로 고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의미함. 이러한 경제형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떨어트림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과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늘려 고용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collaborative economy or consumption)[4], 대중기반자본주의(crowd-based capitalism),[5] 진입경제(access economy)[6] 등) 인해 개념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Botsman and Rogers, 2010; Böckmann, 2013; Sundararajan, 2016). 공유경제의 실행에서도 사용자 간 대비 기업과 소비자 간(peer-to-peer vs business-to-consumer)의 차원이나 기증 대비 구매(gift vs purchase), 공유 대비 대여(sharing vs renting), 그리고 영리 대비 비영리(profit vs non-profit) 등 다면적인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핵심은 20세기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세계 경제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도전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서 핵심적 요소인 소유권으로부터 벗어나 타인과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의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Botsman and Rogers, 2010; Sundararajan, 2016).

공유경제의 개념적 토대인 공동의 또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는 1973년 석유파동(oil crisis)에 따른 경험적 교훈으로부

---

3) 소비자직거래경제(DIY economy)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 스스로 필요를 해결(Do-it-yourself)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4)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는 집중화된 기관과 대비되는 개인과 공동체가 연계된 분산망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로서 기존의 생산과 소비, 재정 그리고 학습 등을 전환시키는 것을 추구하며, 이러한 경제체제의 핵심 구성요소는 생산, 소비, 재정 그리고 교육이다.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는 협력적 경제의 네 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기존의 소유권에서 벗어난 형태의 소비방법을 재정립한 경제모델이다.

5) 대중기반자본주의(crowd-based capitalism)는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일차적 기관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20세기의 본질적인 통제적 계층구조(managerial hierarchy)에서 기업과 시장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새로운 혼합적 경제(hybrid economy)로의 전환된 체제를 의미한다.

6) 접근경제(access economy)는 하나의 사업모델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 소유권(ownership)보다 진입 또는 접근(access)에 기반을 둠. 즉, 재화와 서비스의 영구적 판매(permanently selling)보다 임시적 대여(temporarily renting)에 기반을 둔 거래를 의미한다.

터 시작된 잠재적 자원결핍 또는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Felson and Spaeth(1978)에 의해 제시되었다.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Lawrence Lessig가 자신의 저서(REMIX)에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부터이다. Lessig(2008)에 의하면, 공유경제는 각 개인이 가격이나 재화에 기반을 둔 교환보다도 가치를 창조할 목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상업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공유경제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교환(exchange)이며, 교환은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유용성(availability)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개인 간 교환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공유경제가 상업경제와 뒤섞인 혼합경제(hybrid economy)로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Lessig, 2008). 하지만, 공유가 시장에 의해 조정될 경우, 공유로 볼 수 없음으로 시장이 배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Eckhardt and Bardihi, 2015). 특히, 공유경제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정의의 핵심은 공유경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는 공유경제의 개념적 정의를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이나 포탈(portal)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소비자대여시장의 대여거래를 축소시킴으로서 과소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 유휴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Goudin, 2016, p. 11). 이러한 공유경제의 정의는 주요 이해관련 집단이나 민간부문, 영리적 공유업체 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서 다른 형태의 공유를(즉, 일반적인 비기술적 연대경제나 사회적 경제 등)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상업적 의미를 벗어난 비공식적 행위의 열린 포괄적인 공유는 방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ndararajan, 2016).

공유경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벗

어나 새로운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대량생산과 소비에 기반을 둔 소유권 중심에서 공유경제는 특정 제품을 한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기보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다수가 공유함으로서 과잉생산과 소비를 방지하는 축소지향적인 접근(reduction-oriented approaches)을 통해 자원절약의 협력적 그리고 공동의 소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뚜렷한 차별적 효과를 기대함은 여기에 있다.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계층과 구조가 수평적인 형태의 민주적 특성을 중심으로 일반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산업부문과 대비하여 높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함으로서 보다 참여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Botsman and Rogers, 2010; Schor, 2014). Hamari et al(2015)에 의하면,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경제적 연합은 비용절감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 즉 과잉생산과 소비나 환경오염, 빈곤, 소득격차에 따른 생활필수품의 차등적 접근성 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공유경제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다수의 사람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연대와 결합에 의해 친사회적이고 공리주의적이며 이타적 사고로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Bucher et al, 2016). 따라서 공유경제는 특정 개인이 소유한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교환 및 대여함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Botsman and Rogers, 2010).

2)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논쟁적 접근

(1)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 효과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협력적 경제를 기반으로 협력적 소비에 집중

함으로서 개인이 보유한 유휴자원을 여러 사람이 공유 또는 공동 소비함으로서 불필요한 생산을 축소시키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비효율적인 소유보다 효율적인 활용 또는 소비에 중점을 둔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 Botsman and Rogers(2010)에 의하면, 공유경제는 우월하고 혁신적인 경제체제를 대변하는 것으로 개인이 소유한 유휴자원을 다양한 잠재적 이용자와 소비자가 활용함으로서 효율성과 접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공유경제는 또한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문제인 빈곤 및 빈부격차, 불공평, 낮은 지속성과 늦은 회복력, 외부효과에 의한 불안정성, 호황과 불황의 교차적 연속성, 비금전적 가치에 대한 방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Heylighen, 2017). 현재,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연결망서비스의 상용화 등으로 기존의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된 경제활동에 따라 새로운 접근성과 사업기회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소비의 정착을 주도하고 있다(Botsman and Rogers, 2010; Kaplan and Haenlein, 2010). 공유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단순히 물질적인 유휴제품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교환, 대여 등과 같은 차원을 넘어서 일자리, 공간, 재능 및 능력 등 보다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가 집중된 공간으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인 과잉생산과 소비는 단기간에 도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지만, 이러한 성장은 역설적으로 도시에 수많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폐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유경제는 도시지역에 집중된 이러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된다. Schaltegger and Wagner (2011)에 의하면, 공유경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성을 함께 고려함을 지적한다. 즉, 공유경제는 도시가 안정되어야 다양한 공유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이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고용과 실업은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공유경제는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노인, 주부, 장기실업자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 넓일 수 있음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Martin and Shaheen, 2011). 공유경제는 또한 도시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소유보다 공동 활용을 전제함에 따라 신뢰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7].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가치적 소비에 신뢰가 동반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inninger et al, 2015; Böckmann, 2013; Botsman and Rogers, 2011).

7)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규범(norm), 신뢰(trust),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공유경제의 긍정적 효과

	공유경제의 효과
사회경제적 효과	- 유휴자원을 다양한 잠재적 이용자와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효율성과 접근성의 극대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연결망서비스의 상용화 등으로 기존의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접근성과 사업기회의 증대와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소비의 정착 주도 - 유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가치적 소비에 신뢰가 동반됨에 따라 사회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 -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고비용 구조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사업기회의 확장은 물론이고, 유무형적 경제부분을 포괄하는 경제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함과 함께 기존의 단일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유지
환경적 효과	- 기존의 경제활동에 비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의 기본 특성 중 하나인 자원의 개별 소유보다 공유로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자원절약의 잠재성 확대 -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지양하면서도 많은 양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소비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경제활동의 도모 - 공유와 같은 경제방식으로 개별적 보유와 활용을 축소시킴으로서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감소와 환경오염물 배출의 축소

공유경제가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로는 도시의 경제구조가 전환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되고 있다. 도시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급격한 전환과 함께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단일 산업 중심의 비효율적인 경제구조가 경제적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는 도시의 경제적 침체와 함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이러한 도시의 경제적 침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서 공유라는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와 함께 공유제품에 필요한 비용(즉, 연구비나 홍보비 그리고 거래비용)을 축소시킴으로서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음으로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Albinsson and Yasanthi, 2012). 따라서 공유경제는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고비용 구조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제체제의 정착에 기반을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사업기회의 확장은 물론이고, 유무형적 경제영역을 포괄함에 따라 경제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으로 기존의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ifkin, 2014; Botsman and Rogers, 2010).

공유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도시의 환경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는 인구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중된 공간임에 따라 여러 형태의 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유경제의 기본 특성 중 하나인 자원의 개별 소유보다 공유는 유휴자원으로 방치될 수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자원절약의 잠재성을 갖추고 있음으로 기존의 경제활동에 비해 친환경적임을 제기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또한 환경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잉생산을 지양하면서도 대량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제방식임을 내세우고 있다. 즉, 공유경제가 도시의 환경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차량공유(car-sharing)와 같은 공유방식으로 개별적 차량보유와 활용을 축소시켜 연료소비와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Hamari et al, 2015; Leismann et al, 2013; Martin and Shaheen, 2011; Rifkin, 2014).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러한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문제제기 또한 존재한다.

(2)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접근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과는 달리, 여러 형태의 비판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공유경제는 공유라는 친사회적 행위에 중점을 둔 새로운 경제방식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경제가 사회적 신뢰를 중심으로 이용자 상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의 확장이라는 감추어진 의도에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즉, 공유경제는 초창기 개인 소비자 간 신뢰에 입각한 협력적인 공동의 활용에 중점을 둔 접근과 달리, 현재의 공유 활동은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를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mega platform companies)들이 공유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로 인해 상업성과 수익성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Langley and Leyshon, 2016).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독차지함으로서 수익배분의 불합리성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고용의 대다수가 불안정한 단기고용의 임시직이거나 자유계약직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전형적인 경제활동인 공유거래(sharing transactions)의 대다수가 컴퓨터를 통한 전자상거래(e-commerce)에 집중됨에 따라 실질적인 고용의 창출은 크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Hill, 2015).

〈표 2〉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효과

	공유경제의 부정적 효과
사회경제적 측면	- 공유시장의 독점성에 따른 불공정성 - 공유경제의 수익배분에 대한 불합리성 - 공유경제의 고용불안정성 - 정부개입과 규제의 한계 - 공유거래의 신뢰성 부재
환경적 측면	- 과잉소비에 따른 비환경성 - 과장된 친환경적 이미지에 따른 왜곡된 인식

공유기업 간 경쟁에서의 불공정한 환경은 물론이고,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의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여러 형태의 자본투자, 특히 벤처자본가(venture capitalist), 헤지 펀드(hedge fund), 투자은행(investment banks) 등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을 독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은 투기적 특성을 띔에 따라 공유기업의 운영방향을 수익성과 이윤극대화에만 집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Langley and Leyshon, 2017; Srnicek, 2017).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은 또한 수익성과 경제성의 확보를 위해 공유경제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서 자본투자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우대정책을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자본투자를 국가의 허술한 통제나 규제에 편승하여 조세감면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을 지적하고 있다(Elliott, 2016; Leaphart, 2016). 따라서 공유경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방식을 전환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려는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적 수단이며, 궁극적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에서 신뢰는 모든 공유 활동, 즉 이용자와 소비자 간, 이용자와 공유플랫폼 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공유기업의 신뢰는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신뢰라기보다 공유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임의적 신뢰일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공유기업에 의해 조작된 온라인 평판이나 사용후기와 추천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과 보상은 매우 불확실하며, 이러한 신뢰성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나 성장에 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Ert et al; 2016).

공유경제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친환경적 효과에 대한 비판이다. 기존의 대다수 산업 및 경제활동이 과잉생산과 소비에 중점을 둔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으로 자연환경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되어온 반면, 공유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유보다 공유를 중심으로 소비자 또는 이용자 간 특정 제품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과잉생산과 소비에 따른 유휴자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경제방식이 자원절약의 친환경적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공유경제의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s)이다. 즉, 공유경제의 협력적 또는 공동의 소비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불필요한 과소비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lee, 2015; Tussyadiah and Pesonen, 2016). 게다가,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이미지는 공유경제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은 공유서비스가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8]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이러한 공유서비스가 생태발자국을 더욱 넓게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angiaracina et al, 2015). 따라서 암묵적으로 공유경제는 친환경일 것이라는 잘못된

8) 생태발자국 지수(ecological footprint index)는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1인당 토지면적(헥타르(hectare): 10,000㎡)으로 환산한 것으로 1996년 Mathis Wackernagel and William Rees 등이 정립한 개념이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발자국 지수는 1.78헥타르/1명이고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봄. 2012년 세계 생태발자국은 1966년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증가했으며, 한국의 1인당 생태발자국은 4.41헥타르로 세계 생태발자국 평균(2.6헥타르)보다 1.7배 높다.

믿음과 인식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방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효과나 영향, 즉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 및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적인 입장과 함께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을 확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일 뿐이라는 상반된 논쟁을 탐색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Ⅲ.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논쟁

1.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1) 공유경제의 독점성에 따른 불공정성

공유경제의 기본적 특징은 기존의 소비 형태인 특정 제품의 구매를 통해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 제품을 다수의 이용자 또는 소비자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서 개별소유에 따른 유휴자원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원의 공동 활용과 같은 친사회적이고 협력적 소비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제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음으로 창업기회와 일자리 확대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경제방식은 균형적이고 민주적이며 친사회적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Horpedahl, 2015). 이러한 공유경제는 특히 경제활동과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경제방식인 공유가 도시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이라는 주장은 비판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우선적으로,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공유경제의 공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유경제에서의 공유는 공유기업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공유제품을 잠재적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특정 제품의 개별적 구매에 따른 유휴자원화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으로 공유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효과, 특히 경제적 이득은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특정 집단에게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거래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거래비용의 감소로 상당한 이윤을 획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기보다는 공유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이 독점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초기 산업혁명 당시의 공장주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유시장의 대부분을 소수의 또는 하나의 공유기업이 거의 독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Kenney and Zysman, 2016).

〈표 3〉 플랫폼 공유기업의 시장점유율

공유기업	전문 영역	시장점유율
Kickstarter	대중자본 거래(crowd-funding transactions)	57%
Craigslist	전문서비스(광고, 지역별 상품, 매매 정보 등)	65%
Uber	차량공유(ride-sharing)	86%
Etsy	주문형 제품 시장(custom product marketplace)	91%

출처: Owyang (2015)

공유경제의 범주에 속하는 대다수 개별 공유 거래의 절반 이상을 하나의 공유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적인 독점성은 초기에 진입했거나 새로운 공유사업의 모델을 처음 시작하여 계속 유지했

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의 시장독점적인 현상은 동일한 승자가 전부를 차지한다는(the same-winner-takes-all) 자본주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벤처자본은 이러한 공유경제의 독점적 환경을 더욱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Brynjolfsson and McAfee, 2014; Owyang, 2015; Kenney and Zysman, 2016; Srnicek, 2017). Kasprowicz(2016)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 간 공유플랫폼(peer-to-peer platform)에 기반을 둔 45개 공유기업 중 오직 9개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공유경제의 독점성은 자본주의적 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유사하게 선두기업이 후발기업을 억누르거나 제거하여 시장을 독점함으로서 모든 이득과 혜택을 갖는 특성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한다(Katz, 2015).

2) 공유경제의 수익배분에 대한 불합리성

공유경제에서는 공유기업이 공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기업의 중개적 역할은 이용자 간 공유제품을 공급 및 소비할 수 있게 연결시켜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기업의 플랫폼 중개를 통한 이용자 간 공유행위로 얻어진 이익은 모든 행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Airbnb[9]의 경우, 전체 수익 중 약 75%가 공유숙박시설의 인터넷 중개행위에서 발생한다. Airbnb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갖는 숙박업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수익창출구조이면서도 숙박시설을 소유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9) Airbnb(Airbed and Breakfast)는 숙박 시설과 잠재적 숙박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공유서비스 중개기업으로서 190개국 34,000개 도시에 150만 개 이상의 공유숙소 목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이다.

(Slee, 2015). 즉, Airbnb는 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유숙박시설(대체적으로 개인주택)의 소유자와 잠재적 숙박자를 연결시킬 뿐 실질적인 숙박시설의 관리는 공유숙박시설의 소유자가 담당함에 따라 공유숙박시설의 관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공유숙박시설의 소유자는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기업을 위해 숙박시설을 무비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보수로 숙박시설을 관리하여 공유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특이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숙박공유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전반은 소수의 고용에 낮은 관리비용으로 훨씬 높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수익에 대한 배분은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이다(Schneider, 2014). 공유경제의 수익창출과 배분방식은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이나 시장성을 갖춘 기술, 능력, 자산 등을 가진 사람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그 외는 불리함을 넘어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소득과 수익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배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다수를 위한 풀뿌리 경제방식(grassroots economy model)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에 경제적 이득이 집중되어 나타난 가시적 경제성장을 앞세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배분을 정당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Scholz and Schneider, 2016).

공유경제의 경제방식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과 함께 변화를 위한 자극제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의 경영방식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전통적인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방식에 공유서비스와 결합한 협력적 서비스(collaborative service)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산업 전반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자동차 제조기업이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적 서비스를 추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자동차 제조기업인 BMW, Peugeot, Daimler는 특수목적 회사로 차량공유플랫폼(예를 들면, BMW's DriveNow, Peugeot's Moi voiture, Daimler's Car2go, etc)을 운영하고 있다(Martin et al, 2015; Owyang, 2015). 전통적인 기업들은 공유경제에 적응과 경쟁을 위해 후원(sponsorship), 제휴(partnership), 투자(investment), 매입(acquisition), 독자적으로 새로운 혼합 사업방식의 개발이나 공동브랜드의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나 공유기업의 주식매입 또는 신설 공유서비스 플랫폼의 매입 등으로 협력적 서비스를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Botsman, 2015; Srnicek, 2017). 하지만, 전통적인 기업의 공유경제에 진출은 기존의 경제구조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시장의 교란으로 사회경제적 안정화에도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Howard, 2015). 전통적인 기업과 공유기업 등 모든 기업들이 협력적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서 치열한 경쟁의 유발과 함께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 기반을 둔 거대 기업이 공유산업까지 독점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규모가 경쟁조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으로 거대 기업에 의해 기존 시장과 공유시장 모두가 지배될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설 공유기업이나 제조 및 서비스기업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듦으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공유경제의 고용불안정성

공유경제가 도시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고용방식을 적용한 노동구조의 변화와 함께 유연한 고용기회에 따른 고용증가를 불러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인 근로계약으로부터 벗어나 단기 또는 자유계약(freelance or free contract)에 기반을 둔 유연한 고용형태로의 전환은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고함은 물론이

고,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공유경제는 잠재적 고용인에게 다양한 노동 또는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폭 넓은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용 일자리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와의 맞춤형 연결의 취업/고용공유플랫폼(e. g. TaskRabbit[10])을 통해 노동자의 선택과 기업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Horpedahl, 2015). 하지만, 공유경제가 노동구조나 고용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자유계약과 같은 신흥 고용방식은 노동자의 권리나 이익, 정당한 보수 그리고 고용안정성 등 여러 부문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Uber에 자유계약 또는 독립계약으로 등록된 운전자는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TaskRabbit의 근로자는 연금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공유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종사자는 건강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수준의 복지혜택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Malhotra and Alstyne(2014)에 의하면, 공유기업은 오직 생산을 위한 한계비용만을 포함할 뿐 종사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의료서비스 또는 퇴직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보장도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유기업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경우, 공유기업은 이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될 인건비 및 부수적인 복지혜택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사고에 따른 법적의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음으로 고용비용을 감축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Carboni, 2016). 예를 들면, Uber는 독립계약자인 택시운전자를 직접

10) TaskRabbit은 잠재적 고용인과 고용자 사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즉, TaskRabbit의 홈페이지에 고용자는 일의 성격, 지급 가능금액, 시간, 장소 등을 올리고, 일거리를 찾는 잠재적 고용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유휴 시간, 가능한 지역 등을 등록하면 서로 연결시켜주고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고용할 경우, 매년 사고나 다른 법적 책임으로 발생할 소송비 및 추가비용이 약 8억5천2백만 달러 정도일 것이라 예측됨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과연 Uber와 같은 공유기업이 현재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한다(Srnicek, 2017). 따라서 Uber나 Airbnb 같은 공유기업의 성공요인은 공유요소라기보다 공유를 통한 인간의 노력을 상품화한 착취적 구조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Kenney and Zysman, 2016). 따라서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 및 수익에 대한 불안정성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과 일맥상통한다는 의미이다. 궁극적으로는 공유경제로부터 파생된 불안정성이 도시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도시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4)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한계성

공유경제는 산업이나 경제활동을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집중화된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분산화로 전환시켜 이용자 또는 소비자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 간 연결 그리고 개인의 권한 강화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 공유경제는 신자유주의와 유사하게 시장의 자기통제 또는 관리를 통해 기존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 비롯된 물질주의의 탐욕에 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시장 자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조절 및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방식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규제(government intervention or regulation)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를 여러 형태의 견고한 이해관계가 집적된 연결망을 가진 수혜자임으로 공유경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위나 활동을 통한 미래성장의 추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Cannon and Summers, 2014). 따라서 정부개입 또는 규제가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합리성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대한 실질적이고 논리적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ndararajan, 2016). 하지만, 정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법의 존중을 위해 공공의 개입이 배제되어선 아니 되며, 시장의 자율적 그리고 독립적 통제와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척일 뿐이라는 것이다(Katz, 2015). 특히, 공유경제의 공유서비스는 개인 간 또는 이용자 간 거래와 함께 공유기업의 중개역할에 집중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 자체의 자율적 조정과 관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한다. Interian(2016)는 일반주택을 공유숙박시설로의 전환이 일반주거를 위한 주택의 감소를 불러올 경우, Airbnb와 같은 공유기업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 또는 자기통제 및 관리되거나 자유시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대체적으로, 공유서비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유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나 특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을뿐더러 문제해결을 위한 특정한 접근이 이들의 이익에 반할 경우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경제는 공유서비스의 잠재적 문제인 책임성의 부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다른 조세정책의 허점에 편승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Duhigg and Kocienewski, 2012). 즉, 공유기업은 벤처자본이나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확실한 수익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에 자유롭게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공유거래로 얻어진 수익금은 조세특혜나 규제가 허술한 국가 또는 지역에 집중시켜 세금을 회피함으로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Gregory and Halff, 2016). 예를 들면, Airbnb의 경우 190개국에서 거래한 자금을 아일랜드

공화국(Republic of Ireland)에 집중시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Kocienewski, 2016). 공유기업의 조세회피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는 사회적 의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도시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공유기업의 조세회피가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도시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시킬 수 있으며, 도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투입을 직간접적으로 저해함으로서 침체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5) 공유거래의 신뢰성 부재

공유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신뢰이며, 공유경제의 모든 경제활동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에서 공유상품에 대한 신뢰는 공유기업의 온라인 평판기제가 이용자나 소비자에 의한 자기통제의 플랫폼으로 정부규제의 대안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에서 신뢰는 모든 공유 활동, 즉 이용자와 소비자 간, 이용자와 공유플랫폼 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Botsman, 2015; Botsman and Rogers, 2010). 하지만, 공유기업의 신뢰는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공유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임의적 신뢰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Ert et al(2016)에 의하면, Airbnb에 대한 신뢰를 실증 분석한 결과, 공유사이트에 공유숙박시설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을 경우가 보다 신뢰를 받으며, 높은 가격이 책정된 공유숙박시설을 보다 신뢰하고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즉, 공유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이나 전통적인 방식인 가격 대비 품질을 기준으로 공유기업의 신뢰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유경제의 신뢰를 좌우하는 공유기업의 온라인 평판은 조작되거나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Luca and Zervas(2016)에 의하면, 약 16%의 Yel

p[11])에 대한 온라인 사용후기와 추천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작된 온라인 평판이나 사용후기와 추천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과 보상은 매우 불분명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나 성장에 큰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유에 대한 의미는,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특정한 물품이나 능력, 재능 등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거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으로 서로 간의 호혜와 선의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발전을 확인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의 의미는 공유경제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고 실행된다. 즉, 공유경제에서의 공유기업은 경제활동의 의미에 적합한 목표 및 대상을 선택하고 효율적 홍보 전략을 통해 새로운 협력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양산에 집중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Eckhardt and Bardhi(2015)에 의하면, 약 50,000명의 미국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공유서비스나 상품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회적 관계와는 별개로 가격, 편리성 그리고 업체의 명성(Brand)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Möhlmann(2015) 또한 Car2go와 Airbnb의 소비자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비용절약, 친근감, 서비스의 질, 기업의 신뢰도 그리고 유용성 등을 공유선택권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나타났다고 한다.

11) Yelp은 2004년에 시작된 대표적인 지역 기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로 식당이나 백화점, 병원 등에 대한 탐방후기를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을 통해 모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특히, Yelp의 회원들은 특정 지역의 기업이나 서비스, 지역명소 등에 대한 추천 또한 공유할 수 있다.

〈표 4〉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논점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효과의 쟁점과 한계
공유시장의 독점성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승자독식의 지배적 구조를 확립함. 공유시장의 독점으로 투자자본이 투기자본으로 변질되어 거대 공유기업에 집중되는 독점적 환경이 조성됨. 공유경제의 독점성은 자본주의의 시장독점성과 유사하게 선두기업의 시장지배 현상이 나타남.
수익배분의 불합리성	공유경제의 특성인 소수의 고용에 낮은 관리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수익에 대한 배분은 공유기업에 집중되는 매우 불분명하고 불공평한 구조임. 공유경제의 수익배분은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이나 시장성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짐. 전통적인 산업의 공유시장 진입으로 전반적인 경쟁의 심화로 거대 기업이 수익을 독점화함.
고용의 불안정성	- 자유계약과 같은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고용기회의 확대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됨. - 자유계약이나 독립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은 역설적으로 비용절감을 가져와 공유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킴. - 고용불안정성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정부개입과 규제의 한계성	- 공유경제는 개인 간 또는 이용자 간 거래나 공유기업의 중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 자체의 자율적 조정과 관리를 등한시 함. -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간 다른 조세정책의 허점에 편승한 조세의 회피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함.
공유거래의 신뢰성 부재	- 공유경제의 신뢰를 좌우하는 공유기업의 온라인 평판이 조작되거나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검증의 한계가 있음. - 공유서비스나 상품의 선택에 사회적 관계나 신뢰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도록 조장함.

전반적으로,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공유시장의 독점성이나 수익배분의 불합리성, 고용의 불안정성, 정부개입과 규제의 한계성 그리고 공유거래의 신뢰성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에는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 공유경제의 환경적 효과

1) 공유경제의 과잉소비에 따른 비환경성

공유경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친환경적이라는 특징일 것이다. 기존의 경제구조에서는 생산성의 향상과 소비의 확대가 성장과 발전을 견인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 경제적 접근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방식으로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과잉 생산과 함께 불필요한 소비로 인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 악영향과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초래했다. 공유경제는 이러한 기존의 경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접근, 특히 친환경적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공유경제의 옹호자들은 공유경제가 강력한 친환경성을 갖고 있음을 제기한다. 예를 들면, Zipcar[12]의 공유차량 한 대가 약 14대의 개인 소유 자동차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2025년까지 London에서만 약 100만 명이 자동차를 공유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환경에 적잖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차량공유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배출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음으로 환경적 의미에서 큰 장점임을 지적한다. 여기에, 숙박공유시설 또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즉, 2015년 Airbnb의 환경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에서 숙박공유시설을 이용한 고객이 일반 호텔고객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약 78%(미국의 경우 약 63%)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쓰레기 배출이나 물 소비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lee, 2015). 따라서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소비방식에

12) Zipcar는 렌터카 회사인 Avis Budget Group의 자회사로 회원제 자동차 공유기업이며, 2000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설립되었다. 회원은 한 달 또는 연회비와 함께 차량공유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자동차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도 할 수 있다.

비해 물품과 시설의 사용에 자원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ohen and Muñoz, 2016).

앞에서 언급된 공유경제의 친환경성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의문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공유경제에서 언급된 물품의 공유나 교환으로 과연 생산과 함께 에너지 및 기타 환경에 폐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친환경적 접근이 가능한가이다. 기본적으로,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생산과 함께 소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과도한 소비는 과잉생산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는 소비를 축소시키기보다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하나의 물품을 여러 이용자가 함께 사용함에 따라 소비의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공유는 한 대의 자동차를 다수의 개별적 이용자가 공동으로 활용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을 쉬지 않고 운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어느 한 개인이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여러 사람과 카풀(carpool)을 하거나 혼자만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 여기에,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반면, 자동차를 임대하거나 잠시 대여하여 형태의 공유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동차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이용률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 즉 낮은 거래비용으로 인한 사용횟수 또는 소비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공유경제의 공유라는 특성은 친환경적 효과보다 부메랑효과에 따른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Tussyadiah and Pesonen, 2016). 특히, 개인차량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대중교통의 이용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보다 낮던지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편리한 개인차량의 이용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량의 이용률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에서의 차량공유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기하지만(Lee et al, 2014), 실질적으로는 공유제품의 이용률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보다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특히, 차량공유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의 배출 등을 감소시킨다고 확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Mangiaracina et al, 2015). 따라서 공유경제의 친환경성은 과장된 것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과잉소비를 불러오는 비환경적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공유경제의 과장된 친환경적 이미지에 따른 왜곡된 인식

공유경제의 친환경성을 대변하는 물품의 공유 및 교환은 잠재적으로 과잉 소비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특성은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이미지가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공유상품을 선택함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주장 또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이미지는 공유상품을 소비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만을 근거로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이미지가 친환경적 공유상품의 선택에 핵심적 기준인 듯 과장한다는 것이다(Barnes and Mattsson, 2016). Hamari et al(2015)에 의하면,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의미는 생태적 소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일부의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공유상품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음을 지적한다. 공유경제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기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가공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기에 소비를 확대해도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통해 소비를 자

극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Schor et al, 2016).

〈표 5〉 공유경제의 환경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논점

공유경제의 환경적 특성	환경적 효과의 한계
과잉소비에 따른 비환경성	- 공유서비스와 제품의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편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과잉소비에 따른 비환경적 영향을 초래함. - 낮은 거래비용으로 인한 사용횟수와 소비의 증가로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를 불러올 수 있음. - 공유경제가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보다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오염물질의 감소시킨다는 확증할 근거가 없음.
과장된 친환경적 이미지	-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이미지가 공유상품의 선택과 소비함에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공유경제의 친환경성을 강조함은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기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가공된 이미지를 활용한 소비의 확대에 따른 환경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임. - 공유경제의 친환경적 이미지는 소비의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을 확대함에도 영향을 끼침으로 비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공유경제는 공유물품이나 상품의 소비에 집중하는 소비적 경제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즉, 다수의 이용자가 특정한 공유상품에 집중된 소비, 특히 자동차의 경우 공유소비로 인해 차량매매의 증가를 불러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차량공유는 한 대의 자동차를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서 교체주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소유 차량에 비해 공유이용자의 취향과 욕구에 맞추어 최신의 차량으로 교체하고 최적의 차량환경을 유지함으로서 공유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Kawa, 2016).

전반적으로, 공유경제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제품을 나누어 사용한다는 의미의 공유를 내세움으로서 상대적으로 환경에는 긍정적일 것이란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기업 간 협력에 중점을

둔 경제적 기회 또는 성장의 발판으로 인식되는 최근의 경향은 공유라는 의미가 상업성과 수익성을 위한 경제적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3.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함의

공유의 의미는 특정한 물품이나 능력, 재능 등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거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으로 서로 간의 호혜와 선의를 확인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유는 공공적이고 대중적인 의미를 가진 일련의 행위로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공유에 경제적 의미를 연결시킨 공유경제는 단순히 개개인의 나눔이나 교환과 같은 일상적 행위를 넘어선 경제방식의 전환으로 사회 전반에 협력적 활용 또는 소비를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통한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이론적 기반,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효과 및 영향, 새로운 경제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혼란이나 장애요소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의 효과나 영향에 대하여 과장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공유경제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공유경제가 무엇이며 무엇은 아닌가를 알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또는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경제활동을 공유경제와 연결시킴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경제 활동과 접근은 낡고 뒤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유경제의 모든 활동은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깊은 관련성과 함께 기존도시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 한계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공유경제의 실질적 효과, 즉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도시에 변화를 불러옴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은 아니가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공유경제에서의 공유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나눔과 같은 의미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공유경제의 공유는 경제적 활동을 기반으로 특정 물품의 사용에 따른 비용의 지불까지 동반하는 상업적이고 사익적인 거래와 교환이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호혜의 의미를 가진듯한 공익적 교환으로 둔갑시킴으로서 공유경제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인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공유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개인의 소유물을 타인의 필요에 따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의미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행위에만 머물었다면, 현재와 같은 관심을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공유경제는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을 통해 기존의 호혜적 의미였던 공유행위를 상업적 그리고 경제적 의미를 불러일으킴으로서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경제적 의미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 capitalism) 경제방식과 유사하게 소비의 확대를 위한 경쟁적 구조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즉, 공유경제는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유제품의 교환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중개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여 경제적 성장을 견인하려는 의도에 중점을 둔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자본주의의 공유경제는 플랫폼 공유기업들에게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인 대량 생산보다 소비의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익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시장, 상품 그리고 소비형태 등을 개발하도록 자극한다는 것이다(Srnicek, 2017). 따라서 공유경제의 플랫폼

공유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수요 그리고 수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은 물론이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공유거래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킴과 함께 소비의 확대를 유도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에 빠져들 수 있다(Brynjolfsson and McAfee, 2014; Srnicek, 2017). 하지만, 공유경제의 소비중심적인 접근(consumption-centered approaches)은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즉,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대량 생산이 반드시 대량 소비를 불러온다고 볼 수 없음으로 잠재적 과잉생산이라는 부담을 기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생산 또는 제조와 상관없이 공유제품을 다수의 공유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공동으로 활용함에 따라 대량의 소비에도 과잉생산의 부담은 낮음에 따라 공유기업에게는 큰 장점이 된다는 것이다.

Belk(2014)에 의하면, 공유경제는 공유라는 어휘로 감싼 허위적 상품의 교환적 거래와 관련된 경제활동일 뿐이며, 공유상품의 상업적 교환을 통해 소비자를 착취하는 잠재성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상거래와 차별화된 협력적 또는 공동의 소비로 가장하여 공유경제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확장시킴에 따라 경제방식의 변화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공유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의 소속감이나 일체감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임을 강조하여 공유거래를 사회적 행위로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Tussyadiah and Pesonen(2016) 또한 공유경제가 친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하지만, 공유서비스나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으며, 공유제품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에, 공유경제를 협력적 또는 공동의 활용과 나눔 등으로 표현하면서도 경쟁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방식임으로 사회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Richardson(2015)은 협력적 그리고 공동의 소비라는 의미와 함께 치열한 경쟁과 이윤추구를 함께 내재한 공유경제의 특성이 논쟁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경쟁과 협력 그리고 이윤과 호혜라는 상충된 특성들이 공유경제에서는 상호 공존할 수 있다는 비논리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미흡하지만, 이러한 공유경제의 특성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를 위한 경쟁으로 경제적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와 유사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유경제의 승자독식이라는 경제구조에서는 불안정성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일 수도 있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시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공유경제의 효과와는 다르게 과도한 경쟁과 소비중심적인 접근만을 부추김으로서 도시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수 있음을 제기한다.

공유경제는 우선적으로 잠재적 외부성에 대한 보완적 의미를 배제한 소비중심의 경제방식만을 추구함에 따라 새로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보다 고용감소와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공유경제에서는 공유거래와 소비의 확대에 비례하여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전반적으로 고용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공유거래의 확대는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상거래의 감소를 불러와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유경제는 다양한 공유서비스와 상품을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산업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으로 기존의 전통적 산업구조에서 나타난 고용확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으로 사회경제적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에서의 고용창출은 기존의 장기적인 계약근로와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보

다 불안정한 단기고용의 임시직이나 자유계약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분명한 한계라 할 것이다. 공유경제에서는 또한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의 공유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대다수의 고용은 기존의 산업과 비교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으로 사회경제적 안정에 역행하는 열악한 고용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공유경제의 고용불안정은 역설적으로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에게 정규직 고용의 축소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리는 모순적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은 플랫폼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잠재적 가치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비성 공유제품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이용자 또는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소비가 중심인 규모의 경제에 따른 편익과 혜택 그리고 공유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지게 한다. 거대 플랫폼 공유기업을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독점적 경제구조는 역설적으로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에 따른 이윤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경제구조에 따른 가시적인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유경제의 독점적 경제구조와 함께 잠재적 고용불안정성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반복할 수 있음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인 과잉생산과 소비가 초래한 문제 중 하나는 환경상의 문제일 것이다. 공유경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성과 자원절약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유경제는 합리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공유라는 친환경적 그리고 친사회적 접근을 경제활동에 접목시켜 유휴자원의 방치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에서의 공유는 친환경적 경제활동이라기보다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

미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자원의 절약이나 효율적 활용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앞에서 지적했던 부메랑효과(Tussyadiah and Pesonen, 2016)는 공유경제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역효과일 것이다. 즉, 공유상품의 손쉬운 사용과 저렴한 비용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음으로 공유경제의 공유를 통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과소비의 요인이 될 경우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거래형식에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기계적인 상품의 교환으로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일반적 경제활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친환경성은 허상일 수 있으며, 공유라는 겉으로 드러난 친환경적 의미를 앞세워 소비의 확대와 경제성장이라는 의도에 집중하기 위함일 뿐 환경적으로는 무의미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공유경제는 공유라는 친사회적이고 친환경적 의미를 앞세운 소비중심적인 접근으로 경제성과 상업성 및 수익성까지도 염두에 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의 고도화를 위함일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중심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수단적 의미일 뿐일 수 있다.

Ⅳ. 결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달리, 도시를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접근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부분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영역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변화를 통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도시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며, 현 세대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필요와 같은 세대 간 필요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존의 단순한 도시발전정책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현재, 도시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 및 번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중된 공간이다. 특히, 도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인 과잉생산을 통한 과잉소비와 같은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여러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요구됨은 분명하다.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방식의 일환으로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개인적 소유를 전제한 경제활동과 달리, 소유보다 소비에 중점을 둔 협력적 또는 공동의 소비를 전제하는 새로운 경제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는 기존의 호혜적 의미에 기반을 둔 공유행위를 경제활동에 접목시킴으로서 각 개인 간의 단순한 교환적 행위에서 벗어나 경제적 활동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공유를 경제적 의미와 연결시킨 공유경제는 사회 전반에 협력적 활용 또는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서 사회적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까지도 함께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사회경제적 발전은 물론이고, 공유라는 독특한 특징을 활용하여 환경적 의미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기존의 경제방식은 소유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에 치중한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소유보다 공유에 중점을 둔 소비로 개개인의 소유에 따른 유휴자원의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는 친환경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에서 공유는 경제적 의미가 포함됨에 따라 일반적인 공유와 차별적 특성을 갖는다. 즉, 공유경제의 공유는 개인 간의 단순한 공동 활용이나 호혜적 의미에 목적을 둔 행위라기보다 특정 제품의 사용에 따른 비용의 지불과 공유기업 간 치열한 경쟁까지 동반하는 경제적 행위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경제적 의존성과 함께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에서 나타났던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한계를 반복할 수 있음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일반적인 호혜에 기반을 둔 사회적 행위와 다른 경제적 활동이며, 각 개인 간의 단순한 교환적 행위라기보다는 기업과 소비자 또는 이용자 간의 경제적 거래행위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경제에서의 공유를 경제적 또는 상업적 행위라는 의미보다 사회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는 현상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즉, 공유경제의 공유는 경제적 그리고 상업적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미가 강조됨에 따라 공유경제의 상업성과 수익성을 희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존의 경제행위와 다른 고유한 특성의 친사회적이고 친환경적 경제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에서 공유의 실체, 즉 공유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이며, 특히 공유의 혜택은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의 진전과 발전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론짓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기존의 도시는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한 저성장, 취업난과 함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쇠퇴라는 위협적 상황을 오랜 기간 겪어왔으며, 기존의 경제방식인 경쟁적 소유와 과잉생산에 따른 과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의미로 공유경제가 필요함을 역설하

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방식과 유사하게 공유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규모의 확장에 집중하는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공유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중심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에 부합하며,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즉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연구에 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밝힌다.

참고문헌

Agyerman, J and Evans, T (2003) Exploring the nexus: bringing together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justice and equity, *Space and Policy* 6(1), pp. 70-90

Albinsson, P. A. and Yasanthi, P. B (2012) Alternative marketplaces in the 21st century: Building community through sharing events,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1(4), pp. 303-315

Barnes, S. J and Mattsson, J (2016) Understanding current and future issues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a four-stage Delphi study,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104, pp. 200-211

Belk, R (2014) Sharing versus pseudo-sharing in web 2.0, *Anthropologist* 18(1), pp. 7-23

Binninger, A. S. Ourahmoune, N and Robert, I (2015)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Sustainability: A Discursive Analysis of Consumer Representations and Collaborative Webside Narratives,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31(3), pp. 969-986

Böckmann, M (2013) The Shared Economy: It is time to start caring about sharing; value creating factors in the shared economy, *Faculty of Management and Governance*, University of Twente

Botsman, R (2015) The sharing economy: dictionary of commonly used terms. (http://www.collaborativeconsumption.com/2015/11/12/the-sharing-economy-dictionary-of-commonly-used-terms/

Botsman, R and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u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New York: Harper Business

Brynjolfsson, E and McAfee, A (2014)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New York: W. W. Norton

Bucher, E. Fieseler, C and Lutz, C (2016) What's mine is yours(for a nominal fee)- exploring the spectrum of utilitarian to altruistic motives for Internet-mediated sharing, *Computer in Human Behavior* 62, pp. 316-326

Bulkeley, H (2006) Urban sustainability: learning from best practi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pp. 1029-1044

Cannon, S and Summers, L. H (2014) How Uber and the sharing economy can win over regulators, *Harvard Business Review* (Digital Article), pp. 2-5

Carboni, M (2016) A new class of worker for the sharing economy, *Richmon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22(4), 1

Cockayne, D. G (2016) Sharing and neoliberal discourse: the economic function of sharing in the digital on-demand economy, *Geoforum* 77, pp. 73-82

Cohen, B and Muñoz (2016) Sharing citi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towards an integrated framework,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34, pp. 87-97

Colantonio, A (2010) Urban social sustainability themes and assessment methods,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Urban Design and Planning* 163(2), pp. 79-88

Duhigg, C and Kocienewski, D (2012) How Apple Sidesteps Billions in Taxes, The New York Times (29 April)

Eckhardt, G. M and Bardihi, F (2015) *The sharing economy Isn't about sharing at all*, Harvard Business Review

Elliott, R. E (2016) Sharing app or regulation hack(ney)?: defining Uber technologies, Inc., *The Journal of Corporation Law* 41(3), 727-753

Ert, E. Fleischer, A and Magen, N (2016) Trust and reputation in the sharing economy: the role of personal photos in Airbnb, *Tourism Management* 55, pp. 62-73

European Group on the Urban Environment(EGUE) (1996) *European sustainable cities report*, Brussels: European Union

Felson, M and Spaeth, J. L (1978) Community Structure and Collaborative Consumption: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1(4), pp. 614-624

Finco, A and Nijkamp, P (2001) Pathways to urban sustainab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 3, pp. 289-302

Goodland, R (1995)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nual Review of ecology & Systematics* 26(1), pp. 1-24

Goudin, P (2016) The cost of non-Europe in the sharing economy, in *Economic, Social and Leg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Gregory, A and Halff, G (2017) Understanding public relations in the sharing economy, *Public Relations Review* 43(1), pp. 4-13

Hamari, J. Sjökint, M and Ukkonen, A (2015) The sharing economy: why people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7(9), pp. 2047-2059

Heylighen, F (2017) Towards an intelligent network for matching offer and demand: from the sharing economy to the global brai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pp. 74-85

Hill, S (2015) Raw deal . How the Uber Economy and Runaway Capitalism are Screwing American Workers, New York: Martin's Press

Horpedahl, j (2015) Ideology Uber Alles? Economics Bloggers on Uber, Lyft and Other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Econ Journal Watch* 12(3), pp. 360-374

Howard, B (2015) *We-Commerce: How to Create, Collaborate and Succeed in the Sharing Economy*, Perigee

Interian, J (2016) Up in the air: harmonizing the sharing economy through Airbnb regulations,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39(1), pp. 129-161

Kaplan, A. M and Haenlein, M (2010) Users of the world, unit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ocial Media, *Business Horizons* 53(1), pp. 59-68

Kasprowicz, (2016)

Katz, V (2015) Regulating the sharing economy,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30 (Annual Review 2015), pp. 1067-1126

Kawa, L (2016) *How Sharing Cars Could Actually Boost Auto Sales*, Bloomberg Markets (March, 28th)

Kenney, M and Zysman, J (2016) The rise of the platform economy,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XXXII (3) (http://issues.org/32-3/the-rise-of-the-platform-economy/)

Landorf, C (2011) Evaluating social sustainability in historic urban enviro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7(5), pp. 463-477

Langley, P and Leyshon, A (2017) Platform Capitalism: the intermediation and capitalization of digital economic circulation, Finance and Society, pp. 1-21

Leaphart, J. M (2016) Sharing Solutions?: an analysis of taxing the sharing economy in th United States and Europe, *Tulane Law Review* 91(1), pp. 189-215

Lee, J-B. Byun, W. Lee, S-H. and Do, M (2014) Correlation between optimal car sharing locations and carbon dioxide emission in urban a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11(8), pp. 2319-2328

Leismann, K. Schmitt, M. Rohn, H and Baedeker, C (2013) Collaborative Consumption: Towards a Resource-Saving Consumption Culture, *Resources* 2(3), pp. 184-203

Lessig, L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New York: The Penguin Press

Luca, M and Zervas, G (2016) Fake it till you make it: reputation, competition, and Yelp review fraud, *Management Science* 62(12), pp. 3412-3427

Malhotra, A and Alstyne, M (2014) The Dark Side of the Sharing Economy and How to Lighten It, in: *Viewpoints Communications of the ACM*, November 2014, 57(11)

Mangiaracina, R. Marchet, G. Perotti, S and Tumino, A (2015) A review of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B2C e-commerce: a logistic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and Logistics Management* 45(6), pp. 565-591

Martin, E. W and Shaheen, S. A (2011) Greenhouse Gas Emission Impacts of Carsharing in North America.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12(4), pp. 1074-1086

Martin, E. Upham, P and Budd, L (2015) Commercial orientation in grassroots social innovation: insights from the sharing economy, *Ecological Economics* 118, pp. 240-251

Martin, C. J (2016) The sharing economy: A pathway to sustainability or a nightmarish form of neoliberal capitalism?, *Ecological Economics* 121, pp. 149-159

Owyang, J (2015) T*he Collaborative Sharing Economy Has Created 17 Billion- Dollar Companies (and 10 Unicorns)*. www.web-strategist.com/blog/2015/06/04/the-collaborative-sharing-economy-has-created-17-billion-dollar-companies-

and-10-unicorns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4(13), pp. 35-42

Richardson, L (2015) Performing the sharing economy, *Geoforum* 67, pp. 121-129

Rifkin, J (2014)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London: St Martin's Press

Schaltegger, S and Wagner, M (2011) Sustainable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innovation: categories and interaction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0(4), pp. 222-237

Schneider, N (2014) *Owning is the new sharing*(http://www.shareable.net/blog/owning-is-the- new-sharing)

Scholz, T and Schneider, N (2016) Ours to Hack and to Own: The Rise of Platform Coorperativism, a New Vision for the Future of Work and a Fairer Internet, London: OR Books

Schor, J (2015) On the Sharing Economy, *Context* 14(1), pp. 12-19

Schor, J. B. Fitzmaurice, C. Caragna, L. B and Attwood-Charles, W (2016) Paradoxes of openness and distinction in the sharing economy, *Poetics* 54, pp. 66-81

Slee, T (2015) What is Yours is Mine: Against the Sharing Economy, New York and London: OR Books

Srnicek, N (2017) *Platform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Sundararajan, A (2016)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Cambridge(Ma): the MIT Press

Tussyadiah, I. P and Pesonen, J (2016) Impacts of peer-to-peer accommodation use on travel patter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5(8), pp. 1022-1040

WCED(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United Nations. http://www.un-documents.net/our-common-future.pdf

Abstract

Critical Approaches to the Effects of Sharing Economy on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Joon-Kyo Se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tasks and ultimate goals in urban policy. Although it has been greater efforts to make cities as liveable places, it has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practical achievement. Particularly, cities are places where many soci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to be accumulated in which they have been needed complex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oreover,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also balanced with the necessity for both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However, many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dominated by capitalistic economic ways to achieve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the basis of overproduction and consumption. It has also led to excess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which has resulted in the instability of urban communities. Recently, instead of existing capitalistic economic ways, a new way that sharing economy is received much attention as one of the most practical measures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haring economy is based on collaborative or communal consumption that is totally differed from those capitalistic ways of possession. The sharing econom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21st mode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respond to current social, economical and environment problems effectively. Unlike the positive claims, the sharing economy is criticized for enforcing new liberalistic economic structures, instead of resolving existing soci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sharing economy would be likely to lead to urban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inst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upon the effects of the sharing economy, especially the effects and influence of the sharing economy on urban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Key Words: sharing economy,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socioeconomic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논문신청일: 2020.03.20.
논문심사일: 2020.04.13.
게재확정일: 2020.04.23.